

주요국제문제분석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2007-34

2007. 10. 12



외교안보연구원

최근 베트남의 대내외 동향과 對베트남 관계발전 방향 -WTO 가입과 관련하여-

연구부장 문태영

1. 문제 제기

- 베트남은 95년 ASEAN 가입, 95년 7월 미국과의 수교로 정치적인 국제무대 복귀와 더불어, 06년 12월 미국과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 획득 및 07년 1월 WTO 가입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됨.
- 86년 '도이모이' (Doi Moi, 쇄신) 정책 도입으로 베트남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였으며,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가능케 되었음.
- 베트남은 01~05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7.5% 이상, 06년에는 8.2%를 기록,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줌.
 - 베트남은 유리한 지리적 조건 및 우수한 인적자원과 비교적 풍부한 자원 및 정치·사회적 안정성, WTO 가입 등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가 05년 68.4억 달러, 06년 104.6억 달러로 계속 늘고 있음.
 - 주식시장도 05년 말 시가총액 10억 달러에서 06년 말 138억 달러(주가지수 06년 144% 증가), 07년 6월 200억

<목 차>

1. 문제 제기
2. 베트남의 WTO 가입 배경과 의미
3. 최근 베트남의 대외관계 동향
4. 한·베트남 관계
5. 고려사항

베트남은 86년
‘도이모이’ 정책
도입으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여
2007년 1월
WTO에 가입...

- 달러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성장은 WTO 가입과 함께 07년 베트남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고 있음.
-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임금·환율 등에서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외국기업 우대정책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차기 투자처 및 생산기지로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음.
 - 한국은 베트남과 92년 12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올해 수교 15주년을 맞아 정치·경제·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있으며, 베트남은 중국과 함께 한국 기업들의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국으로 꼽히고 있음.
 - 특히, 한국은 대아세안 투자에 있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투자 규모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남아 후발 4개국 (CLMV), 특히 베트남을 우선순위에 두고 전략적으로 투자·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베트남은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풍부한 인적자원을 지니고 있어, 향후 가장 역동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 예상됨. 앞으로 베트남이 WTO 가입에 따라 취할 시장개방 및 투자환경정책 등이 한국 기업의 진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임.
 -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베트남의 최근 대내외적 동향을 개괄하고 이러한 베트남의 변화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향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해 보고자 함.

2. 베트남의 WTO 가입 배경과 의미

가. 가입 배경: 베트남의 경제적 부상

-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계속된 경제정책 실패로 말미암아 86년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고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영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개인소유를 인정하며, 농업개혁을 통해 농민의 자율적 생산활동을 추진키로 했음.

- ‘도이모이’ 정책 추진결과, 06년 베트남 경제는 86년 정책도입 당시보다 총 GDP 8배, 1인당 GDP 5배, 외국인투자 135배, 수출은 40배 이상 증가함.
- 06년 4월 공산당 10차 전당대회에서 Nong Duc Manh 당서기장만 유임되고, 60대의 지도부를 젊고 개혁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지도부 세대교체를 이루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 우선 순위를 경제개혁, 행정개혁, 정치개혁 순으로 두어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음.
- 06년 11월 WTO 가입승인, 12월 미국과의 PNTR 지위획득에 힘입어 역대 최대규모인 104.5억 불의 해외투자를 유치했으며, 투자국별로는 한국(28.4억 불), 홍콩(11.42억 불), 일본(9.96억 불), 미국(7.69억 불) 순임.
- 2006년도 베트남 총교역액은 840억 불(수출 396억불, 수입 444억불)이며, 최대교역국은 중국(104억 불), 일본(99억 불), 미국(88억 불), 싱가포르 (79억 불)순임.
- 성공적인 ‘도이모이’ 정책으로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고립주의를 탈피하고 ASEAN, ASEM, APEC 등에 가입, 대외개방정책을 확대·심화해 나감.
- 베트남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확대하고자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베트남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베트남 상품의 세계시장 진출에서 WTO 비회원국으로서 받는 차별을 없애고자 WTO 가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결국, WTO 가입 승인을 계기로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조건부 최혜국대우 지위에서 06년 12월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수립하게 됨.

베트남 상품의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
비회원국으로서 받는
차별을 없애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WTO 가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나. 베트남의 WTO 가입 조건

(1) 상품 분야

- 베트남은 농산물을 포함한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를 0~35% 수준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함.
- 다만, 주류, 담배, 인스턴트커피, 자동차(중고 포함)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허용함.

- 복수국간 협정인 정보기술협정(ITA)에 서명함으로써 2014년까지 관련 제품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함.
- 보조금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출 보조를 폐지함.

(2) 서비스 분야

- 베트남은 통신, 회계, 특급배송, 법률, 금융(은행업 및 보험) 등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거나 지분을 확대 조정하는 등 개방 폭을 확대함. 비시설기반 통신서비스의 외국인지분은 가입 시 49%에서 3년 후 65%까지 허용됨.
 - 회계분야에서는 회계 WTO 가입 즉시 외국인 지분이 100% 허용됨.
 - 특급 배송에 있어서는 가입 5년 후 외국인지분이 100% 허용됨.

(3) 무역규범

- 외국인의 내국인과 동등한 무역권한(수출입 권한)을 인정함.
- 베트남은 WTO 가입과 동시에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및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됨.

다. WTO 가입의 의미

- 베트남은 07년 1.11일 WTO의 150번째 회원국이 되었음. 이는 베트남이 95년 1월 WTO 가입을 신청한 이래 12년에 걸친 협상이 결실을 본 것으로, 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에 이어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유발했음. 이로써 베트남은 75년 공산화된 이후 32년 만에 세계경제로 편입하게 되었음.
 - 95년 1월 WTO 가입신청 이후 06년 10월까지 총 14차례의 가입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음.
 - 06년 5월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타결함으로써 28개국과의 양자 협상을 모두 마무리함.
 - 06년 10월 제14차 가입 작업반 회의 시 베트남의 WTO 가입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동년 11월 일반이사회 특별회의를 개최, 베트남의 가입을 승인함.
 - 한국과는 02년 4월 한·베트남 상품 및 서비스분야 양자협상을

1995년 1월,
베트남이
WTO 가입을
신청한 이래
12년에 걸친
협상의 결실로서
베트남은
WTO 150번째
회원국이 되어...

시작한 후 총 9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05년 6월 한·베트남 양자 협상을 타결함.

- 베트남은 WTO 가입을 통해 무역 및 외국인 투자확대 등 경제적 실익 확보는 물론 수출증대를 통해 재정과 내수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대외 신인도 제고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위상을 높이게 되었음. 특히 WTO 가입으로 그간 기울여온 개혁·개방 정책 및 경제발전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됨.
- 베트남의 WTO 가입은 베트남 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베트남의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의 개혁과 개방의 심화가 이루어질 것임.
 - 경제개혁의 가속화는 필연적으로 베트남 정치체제의 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WTO 가입은
베트남 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의미,
그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의
개혁·개방 심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라. WTO 가입의 효과

(1) 수출·입 증가 전망

- 모든 국가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받게 되면서 베트남의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고, 대미 섬유수출 쿼터가 폐지되면서 베트남 수출의 상당부분(15.1%)을 차지하는 섬유제품의 수출급증이 예상됨.
-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 역시 인하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될 전망이며, 또한 수출이 증가하면서도 원부자재나 자본재 산업이 취약하여 기계류 등의 수입이 동반 상승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보임.
 - 06년 수출은 396억 불, 수입은 444억 불로 48억 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음.

(2)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기여

- 베트남은 양질의 저임 노동력(인구의 63%가 30세 이하), 석유·석탄 등 풍부한 천연자원, 정치·사회적 안정 등 투자요인이 많았으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자의적인 정책집행과 불확실성 등 투자 위험 요인이 많았음.
- WTO 가입으로 베트남 정부의 경제정책 시행에 관한 투명성이

높아짐으로써 베트남 경제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실제로 베트남의 가입이 확실시되던 06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증해 애초 목표액이던 65억 불을 훨씬 초과한 104.6억 불(승인액 기준, 베트남 기획투자부 통계)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 (2005년 58억 불)
- 06년 7월 투자에 있어 내·외국인의 동등한 대우를 골자로 하는 통상기업법 및 통합투자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 과도한 외환보유로 인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사라진 중국에 대한 투자위험)를 피하기 위한 대체 투자처로서도 베트남이 부상하고 있음.
- WTO 가입을 계기로 앞으로 베트남의 경제적 도약을 예상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외국투자액이 급속도로 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증하는 외국기업들의 사무실 임대수요 등으로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아파트, 빌딩 건설 붐도 더불어 일어나고 있음.

(3) 주변국과의 FTA 체결 가속화 전망

- WTO 가입으로 주변국과의 FTA 체결 등 국제경제체제로의 편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 현재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이 체결되었고, 베트남이 참여한 한-ASEAN FTA 서비스 및 투자부문 협상이 진행 중임. 미국과도 FTA 체결에 앞서 교역투자 기본협상을 시작할 예정임.

(4) 외압(外壓)을 통한 대내 경제개혁 가속화

- 베트남 경제는 고도성장을 지탱할 인프라시설 부족, 부패와 관료주의, 법체제 미비, 개별기업 및 산업별 경쟁력 취약, 풍부한 노동인력 대비 고급인력의 부족 현상, 인플레이션 등 발전의 걸림돌이 산적해 있음.
- 그러나 WTO 가입을 계기로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고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수출·입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국과의
FTA 체결이
빠르게 진행되어
대내 경제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의 대내 개혁 과정 중, 가장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국유기업 개혁이 경제개혁 성패의 관건으로 작용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대외 개방이라는 외압(外壓)을 통한 국유 부문의 점진적 축소 과정을 베트남도 밟을 것으로 전망됨.
- 07년 5월 IMF 보고서는, 베트남의 WTO 가입은 수익성 없는 국영기업의 개혁을 촉진하고 외국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국영 상업은행의 구조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이미 지난 3년간 국영기업 개혁 과정에서 실직한 12만 명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시행 중임.

WTO 가입에 따라
베트남은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기존의
대외정책 기조를
더욱 확고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

3. 최근 베트남의 대외관계 동향

가. 대외정책 기조: '전방위 글로벌 전략' 추진

- WTO 가입에 따라 베트남은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기존의 대외 정책 기조를 더욱 확고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경제외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글로벌 전략'에 입각한 전방위 대외개방정책을 적극화할 것으로 예상됨.

(1) 대외개방 외교정책 기조 유지

-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자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개방·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외교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교역확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용적 경제외교를 추구함.

(2) 모든 국가와의 선린우호 관계 유지

- 미국, 일본, EU 등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교역증진, 투자 및 원조 유치를 통한 빈곤퇴치 등을 도모하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중국, 북한, 쿠바 등 현 사회주의 국가 및 러시아를 비롯한 CIS 제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연대강화를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위해
IMF, IBRD, ADB 등
세계 금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원조 및 차관
유치에 주력...

도모함.

- ASEAN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AFTA 발효에 따른 아·태 경제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음.
- 영토분쟁 등 주변국들과의 현안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도모함.

(3) 국제문제에 대한 전통적 원칙 견지

- 국가의 일체성에 영향을 주는 아체(Aceh) 지역분쟁, 미얀마 정국 등에 대한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원칙을 견지함.
 - 54개 민족으로 구성된 베트남의 일체성 확보 차원에서 해외 소수민족 분쟁의 국내확산 가능성을 경계함.
- 국제분쟁 해결에서 유엔의 역할, 주권존중 및 국제법 원칙을 중요시 함.
 - 08~09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했음.
- 미국, EU 등의 인권문제 제기에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으로 대응함.
- 어떤 형태의 테러에도 반대하며 국제사회의 반테러 노력을 지지, 동참함.
 - 단, 반테러 활동이 주권 침해나 국내문제 간섭의 구실로 이용되거나 문명 간 충돌 논쟁으로 발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4) 적극적인 다자외교 전개

- 95년 7월 ASEAN 가입을 시작으로, 96년 3월 ASEM 출범 시 ASEAN 국가로 참여하였으며, 98년 11월에는 APEC에 가입함. (2006년 APEC 의장국으로서 APEC 정상회담 개최)
-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07년 WTO 가입과 함께 IMF, IBRD, ADB 등 세계 금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원조 및 차관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나. 주요국가와의 관계

(1) ASEAN과의 관계

- 베트남은 95년 7월 ASEAN의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98년 12월 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2000.7~01.7월간 ASEAN 의장국을 수임한 바 있음.

- 경제외교 추구 및 인접국가와의 우호관계 강화정책에 따라 ASEAN 및 회원국과의 협력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
 - 06년 아세안과의 교역은 200억 불로 전년대비 40% 증가함.
 - 아세안 각국은 베트남에 928개 프로젝트에 128억 불(외국인 투자의 20% 차지)을 투자함. 그중 싱가포르가 480개 프로젝트에 93.7억 불을 투자, 07년 6월까지 총투자 누적규모로 1위를 차지함.
-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AFTA의 본격 발효에 대비한 관세율 조정 등의 국내적 준비,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실현, 매콩강 유역 개발사업의 진전 희망 등 ASEAN의 경제적 통합에는 적극적이나, 정치 사안 및 지역분쟁 논의에는 ASEAN의 컨센서스를 따르면서도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임.
- 올해 WTO 가입 등 베트남의 국제무대 진출에 ASEAN의 도움을 크게 받음.

(2) 중국과의 관계

- 베트남이 78년 12월 캄보디아를 침공한 데 따른 중국의 응징전쟁으로 인해 79년 2월 베·중 전쟁이 발발, 양국관계가 단절되었으나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91년 11월 Do Muoi 당 서기장 및 Vo Van Kiet 총리가 방중, 양국관계를 정상화함.
- 99년 2월 Le Kha Phieu 당서기장 방중 시 장쩌민 주석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설정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양국은 ‘16자 원칙(장기안정, 미래지향, 선린우호, 전면협력)’에 따라 고위인사 교류 및 양국 간 현안을 해결키로 도모함.
- 05년 10월 후진타오 당서기 겸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 2010년 양국 간 교역액 100억 불 목표를 달성코자 무역·투자 확대 등 제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
 - 06년 양국 간 교역이 104억 불로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이 됨으로써 2010년까지 양국 간 교역규모를 100억 불 수준으로 증대키로 한 목표를 미리 달성함.
- 양국 간에는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등이 아직 남아있으나, 양자

베트남은 ASEAN 및 회원국과의 협력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중국과는 1999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설정에 합의...

베트남은 미국과
95년 관계 정상화
실현 후

2000년 베·미
무역협정 체결,
2006년 11월
미국으로부터
항구적정상무역관계를
획득...

및 다자차원에서의 해결을 모색 중임.

(3) 미국과의 관계

- 미국은 75년 4월 공산화 이후 실시한 대베트남 경제제재 조치를 94년 2월 해제하고 95년 7월 대베트남 국교정상화 성명을 발표, 양국관계 정상화를 실현했음. 2000년 7월 베·미 무역협정 체결 및 동년 11월 클린턴 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함.
- 05년 6월 Phan Van Khai 총리는 베트남전 종전 후 정상급 지도자로는 최초로 방미,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우호적이고 건설적이며 다차원적인 협력동반관계'라는 양국관계 발전의 틀(Framework)을 구축함.
- 베트남은 73년이래 92차례에 걸쳐 미국 측에 820구의 유해를 송환하고 MIA(Missing In Action) 수색 및 발굴에 협조하고 있으며, 06년 6월 린즈펠드 국방장관이 베트남을 방문, 양국 군사대표단의 상호교류 및 실종 미군유해 발굴작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베·미 무역협정이 01년 12월 발효된 이후 06년 양국 간 교역이 88.1억 불로 급증함. 이로써 미국은 베트남의 제1의 수출시장(78.3억 불)으로 부상함.
 - 베트남은 매년 Jackson-Vanic Amendment의 적용 유예를 통해 부여되는 최혜국 대우가 항구적인 MFN 지위로 정착되기를 희망해 왔으며, WTO 가입을 계기로 PNTR 지위를 06년 11월 미국으로부터 획득함.
- 06년 11월 APEC 계기 부시 대통령이 공식 방문함으로써 2000년 11월 클린턴 대통령 방문으로 정치적 관계의 정상화에 이어, 경제적 관계의 정상화도 이룩함.
- 과거 미국정부의 베트남에 대한 금수 조치 등으로 그동안 베트남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국 기업들이 최근의 미·베트남 관계 개선 무드 속에서 다양한 투자계획들을 세우고 있으며, 04년 7천5백만 달러에서, 05년 1억 5천만 달러, 06년 7억 7천만 달러로 급격히 늘어남.

- 07년 6월 Nguyen Min Triet 국가주석은 베트남 국가 정상으로는 75년 공산화 이후 처음으로 방미,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함.

(4) 일본과의 관계

- 73년 월맹과 외교관계 수립하였으나, 90년대 들어서야 대베트남 정부개발원조를 대규모로 재개하고 베트남과의 긴밀한 관계 수립을 추진함.
- 양국 간 고위인사의 빈번한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
 - 일본은 1992년 이후 102.9억 불 이상의 유무상 원조를 제공했으며, 이는 베트남에 대한 전체 ODA의 약 30%를 차지함.
 - 2006년도 양국 간 총교역액은 99.3억 불로 중국에 이어 베트남의 2위 교역 대상국이며, 투자액은 74억 불로 네 번째 대베트남 투자국임.
- 06년 11월 APEC 정상회담 참석차 베트남 방문 시 아베 전(前) 총리는 베트남과의 경제적 동반자협정(EPA) 체결 문제를 논의 하고, 베트남 남북간 도로 및 고속철도, 첨단기술 파크 건설사업에 연간 9억 달러 이상 ODA 자금지원을 약속함.

(5) 러시아의 관계

- 구소련 붕괴로 관계가 소원해졌으나, 94년 6월 Vo Van Kiet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 베·러 간 '신(新) 우호협력 조약' 체결을 통해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새로운 협력관계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01년 3월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시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함.
- 양국의 부총리급 경제·과학·기술 공동위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경제분야 특히 원유·가스탐사 및 개발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일본과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2001년
'전통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전환...

4. 한·베트남 관계

가. 정치·외교 관계

- 92년 12월 22일 수교 이후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발전하고 있으며, 01년 8월 Tran Duc Luong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시 양국 관계를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
 -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관계 설정에 합의한 것은 경제분야를 위주로 한 관계에서 탈피하여 정치, 문화,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폭을 확대하자는 의미임.
- 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 한국 정상은 96년 11월 김영삼 대통령, 98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06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함.

한국과는 2001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2006년 양국 간 교역은 수교당시에 비해 10배 증가...

나. 경제·통상 관계

- 06년 양국 간 교역은 48.6억 불(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39.3억 불, 수입 9.3억 불)로 수교 당시(92년 4.9억 불)에 비해 10배 증가함.
 -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양국 간 통상 전망은 수입관세 인하와 베트남 현지 조립을 통한 제3국(특히 미국) 수출상품의 수출증대로 섬유, 기계장비, 석유, 휴대전화, 자동차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 섬유는 베트남 가공제품의 미국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재 수출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기계장비는 시장 개방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와 관세인하 효과로 통신장비 부문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석유는 산유국 입에도 정유공장이 없어 베트남 경제가 성장할수록 수출이 증가될 전망이다.
- 한국은 06년도 한해 총 207건, 26.8억 불을 투자하여 외국 투자국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07.1월~7월간 투자규모도 14.3억 불을 기록함. 이에 따라 전체 누적투자 규모로도 한국이 처음으로 1위(103.3억 불)를 차지함.

-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제3위의 해외투자 대상국가 (중, 미 다음)임.
- 한국 증권업계에서도 가장 인기 높은 상품 중의 하나가 베트남 펀드임.
- 베트남 증시는 2000년 7월 100으로 개장, 고도의 경제성장률 및 WTO 가입 등에 힘입어 07년 1월 주가지수 1,000 돌파하는 등 초강세를 보임.
-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우, LG, POSCO 등 대기업 위주의 철강, 전자, 자동차 등 중공업분야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후에는 섬유, 신발 등 중소기업형 투자가 증대함.
 - 06년도에는 중공업과 건설분야 및 대규모 투자가 증가한 것이 특징임.
 - 베트남에는 현재 약 1,000개의 한국기업(호찌민 지역 700개, 하노이 지역 300개)이 진출, 약 3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중·북부지역은 중공업 중심이고, 남부지역은 경공업 중심)
 - POSCO의 냉연/열연공장(11.26억 불), Tay Ho Tay 신도시 개발(3.14억 불), 두산중공업 발전설비 공장(2.6억 불), POSCO건설 신도시 개발(2.12억 불), 부영건설 사업(1.71억 불) 등이 진출해 있음.
 - 06년 한국의 중국에 대한 섬유산업 투자는 10% 줄어든 반면,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54% 증가함.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한국 섬유산업의 두 번째 투자대상국이 되었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섬유산업 투자국이 됨.
- 한국은 91~2006년간 병원, 학교건축 등 총 7,000만 불 상당의 무상 원조를 베트남에 실시해 왔으며, 매년 KOICA 지원대상국 중 1~2위를 차지함. (2007년 1,275만 불 지원 예정)
 - 경험자금(EDCF) 지원도 베트남을 최우선 지정국으로 선정, 06~09년간 총 4억 불을 지원할 예정임.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제3위의
해외투자
대상 국가로 부상,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형
투자가 증대...

다. 문화·인적교류 관계

- 06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은 42만 명이며(한국방문 베트남인

3만 5천 명), 인천-하노이, 인천-호찌민 구간 각 주 21회의 직항편이 운영되고 있음. 베트남에는 4만여 명 이상의 한국인 체류자가 있으며, 한국 내에는 5만 4천 명의 베트남 체류자가 있음.

- 04.7. 고용허가제 도입 후 베트남이 15,400명의 근로자를 한국에 송출, 최대의 송출국가가 됨. 이는 전체 외국 근로자 중 23.6% 차지하는 비중임.

- 수교 15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12월 22일 주간을 한국 주간, 베트남 주간으로 선포해 수교 15주년 기념 '다이내믹 코리아 페스티벌' (음악회, 영화제, 문화공연, 한국상품 전시회, 패션쇼, 언론·경제·정책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임.

5. 고려사항

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 유지·발전

- 앞으로 베트남의 부상 등을 고려하여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01년 8월 Tran Duc Luong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시 양국관계를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음.
- 이번 외교통상부의 남아시아·대양주국 신설은 종래 아시아·태평양국의 일본, 중국 중심으로 편중된 외교시스템으로부터 한국외교에 중요한 대동남아, 서남아, 대양주 외교의 인프라 구축에 초석을 쌓는 계기가 됨.

나. 한·아세안 FTA 협상 조속 타결

- 06년 8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한·아세안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이 진행 중이나, 핵심 쟁점 등에 있어 아세안 측이 공동 입장을 정하지 못해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한·아세안 FTA 상품 협정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활용하고자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겨 한국으로 역수출

향후 베트남의
부상을 고려하여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아세안은 유럽연합과 유사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국 (2008년), 호주·뉴질랜드(2009년), 중국(2010년), 인도(2011년) 등과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다. ASEAN+3 틀 안에서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

- 앞으로 한국은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우선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아세안 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에서 급부상하고 있고 한국과 관계가 긴밀한 베트남과의 양자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함.
- 베트남의 석유·가스 공동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베트남 제철산업, 전력사업 협력을 통하여 양국 간 에너지·자원협력을 강화해야 함. IT 산업, 건설분야에서의 협력도 계속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라. 한국 공관의 정보수집 강화

- WTO 가입에 따른 베트남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및 기타 무역 제도의 변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한국 공관의 정보수집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KOTRA 및 한국 진출기업과 연계하여 베트남의 WTO 가입협상 시 약속했던 사항들의 이행 여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함.

마. 북한의 세계경제편입 선례로 활용

- 베트남의 WTO 가입은 베트남 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베트남은 무역관련 규범, 정책 및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임.
- WTO 가입 협상 중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베트남 경제, 정책, 법규, 관행 등의 투명성 및 명료성이 제고될 것인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적지만 향후 북한이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희망할 시 반드시 거쳐야 할 WTO 가입에 있어,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베트남의 WTO 가입

한국은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과 긴밀한 양자협력을 강화해야...

과정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최근 북한과 베트남은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과 경제협력 추진을 통해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간 '경협 로드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실리 중심의 양국 경협 확대는 향후 북한의 개방을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임.

2007. 10. 5

토론: 교 수 배금찬
경제·통상 연구부장 강선주
남아시아·대양주국협력관 차영철
편집: 연구원 황지혜

外交安保構想의産室
先進精銳 外交官의産室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우)137-8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t.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